

지역 매아리

부안군의회, 5·18 운동
모독 의원 제명 촉구 결의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25일 본회의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모독하는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의원 퇴출과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부안군의회 의원일동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공당의 국회의원들이 숭고한 5·18의 정신과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편향한 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 다수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반역사적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기본가치로 하는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인권적인 모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의원의 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발의 한 문찬기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는 이 같은 잘못된 역사인식과 발언을 지금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할 것"이라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토지 이용 불편 해소
'공유토지 특례법' 홍보 주력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정읍시가 오는 2020년 5월 22일부터 종료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 특례법)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공유토지 특례법은 2012년 5월 22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유토지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제한을 받아 그동안 토지를 분할하지 못하던 공유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읍시청 지적관리팀(539-5364)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유토지 특례법 시행 이후 공유토지 28건 77필지를 분할 완료함으로써 시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업무추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청사 전면에 초대형 태극기가 게양됐다.

3·1운동 100주년 분위기 '고조'

고창군, 청사 전면에 초대형 태극기 · 거리에 지역 독립운동가 적힌 현수막 내걸려

3·1운동 100주년을 나흘 남겨둔 가운데 관내 초대형 태극기가 내걸리는 등 기념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주말사이 고창군 청사 전면에 초대형 태극기가 게양됐다. 건물 4층 높이 태극기에는 '맞지 않겠습니까, 100년전 그날의 함성을!'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고창군 일대 거리에는 가로 현수막도 내걸렸다. 특히 현수막에는 일광 정시해 선생 등 고창군 독립운동가 73명의 이름과 업적 등이 기록됐

다. 또 지역의 많은 현충시설에도 발걸이 잇따르고 있다.

고창읍내 '일광 정시해 기념관'을 비롯해 고창여고 안에 있는 '김승욱 기적비', 새마을공원 내 '고창군 독립운동 파리지서 기념비', '근촌 백관수 선생 동상' 등에 군민들이 가져다 놓은 흰 국화가 쌓여가고 있다.

공원에서 만난 한 군민은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 줄 미처 몰라 부끄러웠다"며 "아이들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거리 페스티벌에도 참석해 지역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청 관계자는 "정의로운 고창, 고창군에서 선열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고귀한 희생정신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한 행사를 연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동리국악당에서 3.1절 기념식을 연다. 이후에는 만세행진 거리퍼레이드(동리국악당-군청광장)와 기념공연(동리국악 테마공연-봄 그리고 다시 봄) 등을 연다.

/고창=김영식기자

"비합리적인 인사 문제 재발 방지해야"

부안군의회 김연식 의원, 5분 발언 통해 군 잘못된 인사 등 비판

부안군의회 김연식 의원(주산·동진·백산면 선거구)이 25일 부안군의회 본회의에서 역동적인 부안 비전 제시 부족과 비합리적인 인사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연식 의원은 민선 7기 출범 후 8개월간의 짧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부안군은 아직 새만금개발과 2023년 세계잡버리대회 유치 성공에만 의지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부안민의 새롭고 역동적인 비전을 마련하여 과거 인구 17만이었던 생거 부안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8일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팀장급 보직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 배치하지 못한 점과 인사 관련 내부 기준을 정해 놓고도 이를 스스로 어기고

실행 없이 인사를 시행 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역 발전의 압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건전한 정책 제시와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동반자가 되자고 함께 제안하면서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촉구한 새로운 시책개발과 인구 정책의 혁신 요구가 부안군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연식 의원은 "앞으로도 민선 7기 군정이 바른길로 가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집행부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도 계속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 시립박물관대학 상반기 강좌 개설... 선착순 모집

정읍시립박물관이 '제2기 정읍 시립박물관대학' 강좌 수강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강좌는 지난해 처음으로 개설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정읍문화유산을 재조명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강좌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 운영된다.

상반기 강좌의 주제는 정읍의 독립운동이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정읍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강좌는 3월 23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총 4강과 1회 답사로 진행되며, 답사는 정읍시립박물관 교육체험실에서 실시된다.

강좌별 일정은 ▲3월 23일 전북지역 3·1독립만세운동과 정읍 ▲30일 새롭게 밝혀진 정읍 민족종교의 독립운동 ▲4월 6일 아몰지 않는 상흔, 정읍 신대인을 화호리 일대 ▲13일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의 일상 ▲20일 답사다.

강사는 김재영(정읍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안후상(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 함한희(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박경복(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관장) 등 지역 연구자와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인으로 구성된다.

수강 신청은 전화로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립박물관 홈페이지와 전화(063-563-6792~3)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귀여운 겉모습에 반하고, 달콤 고소한 맛에 반하고

고창에서 꼭 먹어봐야 할 복분자빵 · 장어빵 화제

처음 보면 입가에 배시시 미소가 지어지는 빵. 한 입 크게 베어물면 건강과 맛 두가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빵. 귀여운 겉모습에 반하고, 달콤 고소한 맛에 평생 반하는 마성의 빵이 고창에 있다.

산·들·강·바다·갯벌이 모두 있는 고창의 매력을 맘껏 느낄 수 있는 고창전통시장의 최근 '장어빵' · '복분자빵'을 선보여 화제다.

'장어빵'은 고창 특산물인 풍천 장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귀여운 얼굴에 특유의 꼬리가 돋보이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간식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장어빵은 치즈맛과 카레치즈맛 2종류. 빵 속에는 팔 앙금에 계피와 견과류를 더해 고소한 향과 씹는 맛까지 느낄 수 있다.

'복분자빵'도 화제다. 복분자 특유의 알알이 맺힌 열매를 표현한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특히 복분자크림, 고구마 슈크림, 팥콩 슈크림, 계피팥콩, 팥콩 콩팥 등 다양한 맛을 선택할 수 있어 가족끼리, 연인끼리 나눠 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앞서 고창군은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창전통시장'의 슬로건을 '건강한 먹거리를 자랑하는 무병장수 전통시장'으로 삼고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 전국 문화관광형시장 '최우수 시장(S등급)'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창군청 지역경제팀 김선미 팀장은 "고창전통시장 상인회와 함



께 복분자빵 · 장어빵이 지역특화 상품과 한반도 첫수도 고창 대표하는 특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원도심 중심 시가지 지중화사업 완료

정읍시가 시청과 세무서 앞 520m 구간에 15억5,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한 지중화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 구간은 시청 앞 기아자동차에서 중앙로의 400m 구간과 정읍세무서에서 새암로 120m다.

시는 전선과 케이블 선을 제거하고 한전주를 철거했으며 특색 있는 보도블럭으로 포장해 쾌적한 거리를 조성했다. 이 사업은 시와 한전, KT, 공사 통신사가 함께 추진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회를 갖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다.

시 관계자는 "지중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상가와 시민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해해 잘 마무리 됐다"며, "이후 구간 개선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면 참쾌한 골목 상권을 되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년 지중화사업 구간은 태평로와 쌍화차 거리다. 시는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 시행해 공사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ree bottles of wine and a cartoon character.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It lists various gift sets and their prices, such as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